

어머니의 부모역할지능과 양육 스트레스 및 유아 조기
특기교육에 대한 인식과의 관계*

The Relationships among Korean Mothers' Parental Intelligence,
Parenting Stress and the Perception of Parents Regarding
Very Early Extra-Curricula Education

성신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강 사 권 정 윤**

교 수 장 영 희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

Lecturer : Kwon, Jeong-Yoon

Professor : Jang, Young-Hee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parental intelligence, parenting stress and the perception of parents regarding their children's very early extra-curricula education. A total of 436 mothers, whose children were enrolled in seven private kindergarten and child-care centers in Seoul, responded to the questionnaire.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the mothers who participated generally have high parental intelligence scores, but the scores of their parenting stress were low. They also tend to view their very young children's extracurricular education in a positive light. These three variables also appear to be significantly different based on the educational level and family income of the mothers. Finally, a significant relationship is shown to exist between the mothers' parental intelligence and their parenting stress, although the mothers' parental intelligence does not seem to be significantly related to their perceptions of very early extracurricular education for their children. However, the study suggests that the parenting stress of mothers is significantly related to their perception regarding very early extracurricular education.

▲주요어(Key Words) : 부모역할지능(parental intelligence), 양육 스트레스(parenting stress), 조기 특기교육(very early extra-curricula education), 부모의 인식(parental perception)

* 이 논문은 2004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연구의 일부임(KRF-2004-037-B00074).

** 주 저 자 : 권정윤 (E-mail : jeongyunik@hanmail.net)

I. 서 론

유아기는 인간의 발달에 있어서 결정적인 시기로서 유아기의 여러 경험과 환경 및 교육이 유아의 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는 20세기의 거의 모든 유아교육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교육열이 높은 우리나라 부모들은 유아들이 인간의 발달에 있어서 결정적인 시기인 유아기를 그 자체로서 즐기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경쟁사회를 대비하는 학습 준비기로 몰아가고 있다. 최근 몇 년간 급격히 증가된 조기 특기교육은 단지 유아에게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뿐만 아니라 학습지 시장의 규모가 매년 1천억 원 이상 증가하는 등(통계청, 2001) 가정경제에도 심각한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이에 따라 조기 특기교육은 이제 교육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사회현상으로서 이해해야 한다는 관점이 제기되었으며(조혜선, 2004), 조기 특기교육을 받지 않는 아이는 대한민국에 소수에 불과할 정도가 되는 등 급격한 유아교육 문화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 볼 조기 특기교육은 이기숙 등(2001)의 연구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학원교육, 개인이나 소집단의 집단 과외교육, 가정 학습지, 가정 방문 교육, 그리고 유치원 특별활동을 의미한다. 조기 특기교육은 유아의 적성을 위한 지도라기보다는 성인에 의해 교육의 내용이 결정되며, 주로 주입식의 지식 전달 위주의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 문제점이 지적되었다(장혜순 등, 1994).

조기 특기교육에 관한 연구들은 1990년대 후반 이후부터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조기 특기교육의 실태와 유아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부정적인 영향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다(신의진, 2002; 우남희 등, 2005; 이숙, 1997). 엄선희(1999), 홍은자(2001)는 조기 특기교육과 유아의 스트레스가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부모들의 조기 특기교육에 대한 인식에 관한 연구들은 전국의 사립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유아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이기숙 등(2002)의 연구와 부모들의 조기교육열에 대하여 질적으로 접근한 한지혜(2003)의 연구 외에 박수진(2001), 황혜신(2003)의 연구 등으로 조기 교육의 실태와 함께 연구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유아의 조기 특기교육에 관한 국외연구들은 주로 학령기 아동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서 사설학원 교육을 통한 학업 준비교육의 문제점이나 현황에 관한 연구가 있으나(Davies, 2004; Manzo, 2002). 학령 전 유아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조기 특기교육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 이는 선진 서구사회에 있어서 학령 전 교육과 학령기 교육의 교육과정이 엄격히 지켜지는 교

육 사회현상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조기 특기교육에 있어서 주 수요자는 3-7세의 유아를 둔 부모들로서 출산율의 저하와 경쟁적인 사회 분위기와 맞물려 아이다워야 하는 유아들에게 '공부'의 개념을 일찍이 심어주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 부모들의 독특한 교육열에 대하여 많은 학자들의 연구와 정의가 있었는데, 그 중 이종각(2002)에 의하면 교육열은 "교육에 대한 동기체제"로서 부모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녀교육욕구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교육열은 일정한 '운동법칙'에 따라서 "여러 가지 대상들, 즉 그 당시 사회의 교육상황과 "상황에 대한 행위자(예를 들어 학부모)의 주관적 인식과 결합"하여 '교육열 현상'을 일으키게 되는 점에서 우리나라 부모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교육열'과 이로 인해 나타난 '교육열 현상'은 별개의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교육열이 있는 부모들은 특히 경쟁사회에서 자라는 젊은 부모들로서 참 부모역할에 대해 알지 못하고, 무엇인가 "공부"를 시키고 있지 않으면 뒤쳐진다고 믿는 심리적 불안감과 육아 불안을 함께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유아에게 지나친 조기 특기교육을 실시하는 부모들에 대한 연구들에서는 자녀에 대한 지나친 기대와 육아불안이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Akazawa et al., 1999; 牧野カヅ코, 1982; 鈴木眞由子, 柿野茂美, 199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부모들의 조기 특기교육열이 직접적으로는 자녀 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주관적인 인식과 간접적으로는 부모역할 및 양육 스트레스에서 영향을 받아 나타난 것으로 보고, 부모역할지능과 양육 스트레스를 탐색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부모는 사랑과 애정을 근간으로 하여 유아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정상적인 발달을 하도록 도우며 사회화가 이루어지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는 과거에 비해 많이 달라진 유아들의 성장과 발달에 따른 복합적인 부모의 역할이 요구되어 적절한 지식과 효과적인 부모역할 기술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부모역할이란 사회에서 '부모'들에게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일련의 행동과업들을 말하는데(Sanders & Woolley, 2005), 부모의 역할이 유아에게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은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강조되어 왔으며 부모역할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관한 연구들도 많이 진행되고 있다. 대부분의 부모역할에 대한 연구들에서는 부모의 고정화된 행동패턴이나 태도를 측정하는 것이 중심이 되어왔으나 실제로 부모들이 자녀와의 갈등상황에 접했을 때는 그 순간에 적합하고 적응적인 부모 역할행동을 선택하게 된다는 주장도 나타났다(현미숙, 2004). 이러한 자녀와의 문제해결의 순간

에서 적절한 행동을 선택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 바로 상황과 맥락에 적절한 부모역할을 할 수 있는 지적 능력과 지적 행동인 부모역할지능이다(Parental Intelligence; Kail & Pellegrino, 1985).

Kail과 Pellegrino(1985)는 지능을 지적행동(intelligent acts)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여 부모역할지능을 적절한 부모의 행동 또는 지적행동을 이끄는 기초적인 인지능력을 포함한 정신과정으로 정의하였다. 부모역할지능의 개념을 부모역할과 지능의 두 개념이 합쳐진 것으로 설명한 Holden과 Ritchie(1988)는 긍정적인 부모역할을 양육역할(caregiving role), 관리역할(managing role), 발달자극역할(nurturing role)인 3가지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이러한 부모역할지능의 개념에 대하여 현미숙(2004)은 부모역할지능이 우리가 일상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모든 지적능력을 사용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부모들이 부모 역할을 할 때에 각 상황과 맥락에 적합한 행동을 선택하고 실제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능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부모역할지능은 일반적인 부모역할(양육, 관리, 발달자극 역할 등)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맥락에 맞는 합리적인 역할선택능력과 부모역할들의 갈등상황에서 적절하며 동시에 적합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지적능력으로 여겨진다(현미숙, 2004). 지금까지 이루어진 부모역할지능에 관한 국내 연구는 최근 현미숙(2004)의 연구를 시작으로 하여 백경숙과 윤지영(2004)은 부모역할지능과 부모역할 만족도와와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국외의 연구에서는 부모역할이나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부모 역할에 대한 인지적인 준비도를 조사하여 간접적으로 부모역할지능의 개념을 측정한 연구(Miller et al., 1996; O'Collaghan et al., 1999)는 소수에 불과하다.

현재 우리사회에서 유아를 둔 부모의 역할, 특히 어머니의 역할에서 찾아볼 수 있는 특이점은 이른 시기에 자녀의 정규 교육을 대비하여 사교육에 몰두하는 교육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거의 대부분의 유아들이 조기 특기교육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어머니들은 과거에 일상적으로 수행해왔던 것과는 다른 부모역할의 출현에 대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저 출산, 과잉 경쟁시대에서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은 증가하고 자녀 양육을 어머니 혼자만의 역할로 인식하는 고정관념이 존재하는 가운데 어머니의 자녀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는 더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김정·이지현, 2005).

양육 스트레스는 자녀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나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자녀양육과 관련해 느끼는 스트레스의 다양한 부분을 포함하는 특징이 있다(최경희, 2001). 즉, 양육 스트레스는 부모들이 자녀들을 키우면

서 느끼거나 또는 경험하는 어려움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모의 특성과 관련된 변인들, 자녀의 특성과 관련된 변인들, 그리고 부정적인 사건들로 이루어진다(Abidin, 1990; Reitman et al., 2002; Webster-Stratton, 1990). 양육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양육 스트레스와 양육행동 간의 부정적인 상호연관성에 관련된 연구들과(김미숙·문혁준, 2005; Anthony et al., 2005; Belsky et al., 1996),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가 유아의 행동 및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인 측면에 관한 연구들(Benzies et al., 2004; Crnic & Low, 2002; Crnic et al., 2005)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어머니들의 양육 스트레스는 자녀의 학업과 관련되는 부분에서 외국의 어머니들과는 달리 부모들이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신숙재, 1997). 주로 자녀의 학업이나 공부에 대한 기대가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러한 양육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녀의 학습에 대한 어머니의 부담감이 나타나는 것으로 여겨진다.

양육 스트레스에 관한 우리나라의 연구들은 양육행동, 부모 효능감, 결혼 만족도 및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과의 관계를 조사한 것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김현미·도현심, 2004; 전귀연·김수경, 2005; 전춘애·박성연, 1998; 최형성, 2005), 조기 특기교육과 양육 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알아본 연구는 안지영(2003)의 연구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들이 부모의 역할에 대한 적절한 지적능력과 지적행동이 부족하거나, 어머니들이 자녀의 학습에 대한 기대치와 그에 대한 실제적인 양육역할과 지도 사이에서 어려움과 부담감 및 스트레스를 느끼게 되면 유아교육기관 또는 학원을 이용하여 자녀들의 교육을 대신 지도하게 하는 경향성이 나타날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의 동향을 살펴본 바와 같이 부모의 역할지능과 양육 스트레스의 변인이 조기 특기교육에 대한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관해서는 아직 연구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어머니들의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능력과 어머니들이 느끼는 양육 스트레스, 그리고 조기 특기교육에 대한 인식사이의 상호관련성을 조사하여 조기 특기교육에 대한 어머니들의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밝혀내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서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어머니들의 부모역할지능은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어머니들의 양육 스트레스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어머니들의 조기 특기교육에 대한 인식의 수준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4> 어머니들의 부모역할지능과 양육 스트레스, 조기 특기교육에 대한 인식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에 위치한 7곳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4~6세의 자녀를 둔 어머니 43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아동들의 평균 연령은 4.95세였으며, 어머니의 연령은 30~40세 사이가 약 87%였다. <표 1>에 제시한 것 같이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전문대졸이상이 70.5%이었고, 직업은 전업주부가 61.7%로 가장 많았다. 아버지의 경우 교육수준은 전문대졸이상이 82.8%이었다. 가구당 수입은 월 500만원 이상의 수입을 가진 가정(25.7%)이 가장 많았다.

2. 연구도구

1) 부모역할지능 측정도구

어머니의 부모역할에 대한 지능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도구로는 현미숙(2004)이 개발한 부모역할지능 척도(Parental Intelligence Scale: PIS)를 수정, 축소하여 사용하였다. PIS 척도는 5점 척도로서 Holden과 Ritchie(1988)가 추출한 부모역할인 발달자극역할, 양육역할, 관리역할의 3가지 영역아래 8가지 부모역할특성을 나타내는 공감(6문항), 격려(6문항), 증진(6문항), 합리적 권위(6문항), 융통성(3문항), 거부(6문항), 수용(3문항), 통제(8문항) 항목을 포함하여 총 4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모역할지능 점수는 응답자의 총점이 높을수록 부모역할지능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부모들은 척도에 제시된 구체적인 부모역할 상황에 대하여 '나라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라는 질문에 실제 양육행동과 유사한 판단을 하여 응답하게 된다. PIS 척도의 각 항목의 내용은 2~3가지의 수준으로 나누어지는데, 예를 들어 공감의 항목의 경우 부모가 자녀가 보내는 신호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자녀의 행동에 대하여 감정이입적인 의사소통을 하는지에 대한 수준으로 나누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3가지 영역의 8개 항목별로 나누어진 수준 중에서 내용이 중복되는 문항을 제외하고 30문항을 선정하였다. 이를 요인분석한 결과 각 요인의 고유치는 '발달자극역할' 3.14, '양육역할' 0.82, '관리역할' 0.73이었으며

설명되는 변량은 전체 누적 변량인 60.61% 중 각각 40.83%, 10.32%, 9.46%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발달자극역할에 공감(4문항), 격려(4문항), 증진(4문항), 합리적 권위(4문항)를 선정하여 16문항으로 구성 하였고, 양육역할에는 융통성(3문항), 거부(4문항), 수용(3문항)의 10문항, 그리고 관리역할에는 통제(4문항)를 사용하여 총 30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PIS에 대한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내적 신뢰도계수는 8개 항목에 따라 공감은 Cronbach's $\alpha=.74$, 격려는 Cronbach's $\alpha=.79$, 증진은 Cronbach's $\alpha=.80$, 합리적 권위는 Cronbach's $\alpha=.75$, 융통성은 Cronbach's $\alpha=.69$, 거부는 Cronbach's $\alpha=.80$, 수용은 Cronbach's $\alpha=.75$, 통제는 Cronbach's $\alpha=.78$ 로 나타났으며, 전체 문항에 대한 α 값은 .80 이었다.

2) 양육 스트레스 측정 도구

양육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이경숙 등(2000)과 신숙재(1997)가 번안한 Abidin(1995)의 Parenting Stress Index-Short Form(PSI-SF)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PSI는 부모-자녀 체계의 역기능적인 측면이나 부모에게 스트레스를 가져오는 요인을 밝히고자 개발된 부모용 자기보고식 질문지이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일반적인 양육스트레스 이외에도 조기 특기교육의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녀의 학습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알아보는 데 중점을 두었다. 따라서 기존의 신숙재의 양육 스트레스 척도에서 자녀 학습관련 스트레스 문항을 포함한 17문항과 부모의 자녀 학습관련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한 3문항을 연구자가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구성된 문항은 유아교육 전문가들로부터 내용의 타당도 검토를 받고 수정, 보완되었다.

양육 스트레스 측정도구는 요인분석 결과 아이겐 값 1.0을 기준으로 3요인이 추출되어 '자녀의 학습관련 스트레스' 7문항, '자녀의 기질관련 스트레스' 7문항,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요인의 고유치는 '자녀의 학습관련 스트레스'가 3.82, '자녀의 기질관련 스트레스'가 2.56,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가 2.20이었으며, 설명되는 변량은 전체 누적 변량인 62.82% 중 각각 28.06%, 19.64%, 15.12%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양육 스트레스를 많이 지각하고 있는 것을 나타낸다. 양육 스트레스 척도에 대한 내적 합치도 계수는 3가지 영역에 따라 '자녀의 학습관련 스트레스'는 Cronbach's $\alpha=.81$, '자녀의 기질관련 스트레스'는 Cronbach's $\alpha=.79$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는 Cronbach's $\alpha=.76$ 로 나타났으며 전체 문항에 대한 α 값은 .82였다.

3) 조기 특기교육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 측정도구

조기 특기교육에 관한 어머니의 인식과 조기 특기교육을 실시하거나 또는 실시하지 않는 이유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기숙 등(2002)과 일본 국립교육정책 연구소(2001)의 자료를 참고하여 연구자가 설문지 문항을 구성하였다. 어머니들의 조기 특기교육에 대한 인식은 주로 이에 대한 필요성, 시기 등에 대한 인식을 묻는 내용이나 예체능 교육, 문자교육의 조기 실시에 대한 어머니의 의식을 알아보는 내용들로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져 왔다. 본 연구를 위해 구성된 문항의 내용은 조기 특기교육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을 측정하는 5점 척도로 구성된 문항(6문항), 조기 특기교육을 실시하거나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1-3순위 중복 응답형의 문항(2문항), 부모용 인적사항(2문항), 자녀 인적

사항(2문항)등으로 구성되어있다. 구성된 문항의 내용은 유아교육 전문가들로부터 타당도를 검토 받고 수정, 보완되었다. 조기 특기교육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을 묻는 문항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단계로 응답하도록 구성하였으며 6문항 중 1문항은 역산 처리 되었다.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2005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서울시에 위치한 4곳의 유치원과 3곳의 어린이집에 다니는 4세에서 6세 사이의 유아를 둔 부모들을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자가 먼저 전화로 섭외하고 연구 참여를 수락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을 원장선생님과 교사에게 전달한 후 협조를 받아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각 반의 교사가 유아의 가정으로 전달한 후 첨부한 반송봉투에 넣어 수거하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 전체 7개 기관에 총 600부가 배부되었고 그 중 451부가 회수되었다. 회수된 질문지는 잘못 포기하였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15부를 제외한 후 최종적으로 436부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연구문제 검증에 위하여 기술통계, 중복응답분석, 분산분석 및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분석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척도의 신뢰도로는 Cronbach의 Alpha값을 산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어머니의 부모역할지능

본 연구대상 어머니의 부모역할지능에 대하여 측정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어머니들의 부모역할지능의 평균 점수는 3.46(SD=.37)이었고, 부모역할지능의 상위 세 가지 영역 중에서 자녀 관리역할에 대한 지능이 가장 높았다 (M=4.11, SD=.78).

<표 2> 부모역할지능의 평균과 표준편차

영역	M	SD
발달자극역할	3.26	.33
양육역할	3.53	.51
관리역할	4.11	.78
전체	3.46	.37

<표 1> 연구대상의 특성 (N=436)

특성	구분	빈도(%)
유아의 성별	남아	225(51.6)
	여아	211(48.4)
유아의 연령	4	132(30.3)
	5	190(43.6)
	6	114(26.1)
아버지의 학력	고졸 이하	75(17.2)
	전문대졸	282(64.7)
	대학원졸	79(18.1)
어머니의 연령	25이상~30미만	7(1.6)
	30이상~35미만	184(42.2)
	35이상~40미만	194(44.5)
	40이상~45미만	51(11.7)
어머니의 학력	고졸 이하	126(29.5)
	전문대졸 이상	274(62.8)
	대학원졸	36(8.4)
어머니의 직업	전업주부	269(61.7)
	서비스 및 근로자	37(8.5)
	사무직	74(17.0)
	전문직	56(12.8)
월수입	100~200만원 미만	60(13.7)
	200~300만원 미만	94(21.6)
	300~400만원 미만	102(23.4)
	400~500만원 미만	68(15.6)
	500만원 이상	112(25.7)

<표 3> 어머니의 학력, 직업, 월수입에 따른 부모역할지능

M(SD)

	영역	발달자극역할	양육역할	관리역할	전체
인구학적 변인	고졸 이하	3.17(.31) ^a	3.38(.41) ^a	3.96(.61) ^a	3.34(.30) ^a
	전문대졸 이상	3.30(.35) ^b	3.60(.51) ^b	4.18(.87) ^b	3.52(.41) ^b
	대학원졸	3.29(.28)	3.53(.64)	4.11(.54)	3.48(.30)
	F	6.82**	7.86***	3.49*	9.19***
	전업주부	3.23(.30)	3.50(.42)	4.07(.65)	3.43(.30)
	서비스 및 근로자	3.19(.28)	3.44(.30)	4.01(.73)	3.39(.21)
	사무직	3.37(.44)	3.62(.71)	4.21(1.14)	3.56(.58)
	전문직	3.34(.35)	3.65(.65)	4.21(.82)	3.56(.42)
	F	3.86*	2.35	1.35	3.72*
	100~200 만원 미만	3.23(.30)	3.31(.45) ^a	3.96(.75)	3.36(.31) ^a
	200~300 만원 미만	3.21(.34)	3.50(.47)	4.07(.74)	3.42(.38)
	300~400 만원 미만	3.26(.31)	3.56(.43)	4.14(.77)	3.48(.32)
	400~500 만원 미만	3.29(.45)	3.69(.80) ^b	4.30(1.14)	3.56(.59) ^b
	500만원 이상	3.31(.45)	3.53(.33)	4.07(.52)	3.48(.25)
	F	1.32	4.70**	1.73	2.77*

*p<.05, **p<.01, ***p<.001; a, b: Sheffe 사후검증 결과 차이가 있는 집단끼리는 다른 문자로 표시함(p<.05).

이러한 부모역할지능이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인 연령, 직업, 학력, 수입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어머니들의 부모역할지능 총점은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어머니의 학력, 직업, 가정의 월수입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9.19, p<.001; F=3.72, p<.05; F=2.77, p<.05).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어머니의 직업에 따라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어머니의 학력에 따른 부모역할지능 총점에 대해 고졸이하 집단과 전문대졸 이상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5). 또한 어머니의 수입에 따른 부모역할지능 총점에 대해서는 월 평균 가정수입 100~200만 원인 가정과 400~500만 원인 가정 간에 부모역할지능에서 유의한 차이가 났다(p<.05).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어머니의 학력은 발달자극 역할지능(F=6.82, p<.01), 양육 역할지능(F=7.86, p<.001), 관리 역할지능(F=3.49, p<.05)의 3개 하위영역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고, 사후검증 결과에서도 고졸이하 집단과 전문대졸이상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어머니의 직업은 발달자극 역할지능 영역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F=3.86, p<.05). 한편, 가정의 수입은 양육 역할지능의 영역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고(F=4.70, p<.01), 사후검증결과 월평균 가정수입 100~200 만원인 가

<표 4> 양육 스트레스의 평균과 표준편차

양육 스트레스 영역	M	SD
자녀의 학습관련 스트레스	2.31	.66
자녀의 기질관련 스트레스	2.31	.69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2.17	.54
전체	2.26	.51

정과 400~500만 원인 가정 간에 양육 역할지능에서 유의한 차이가 났다(p<.05).

2.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표 4>와 같이 본 연구대상 어머니들은 낮은 양육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M=2.26, SD=.51). 구체적으로 보면, 자녀의 학습관련 스트레스와 자녀의 기질관련 스트레스가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보다 평균이 약간 높았다(M=2.31, SD=.66; M=2.31, SD=.69).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인 연령, 직업, 학력, 수입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어머니들의 양육 스트레스 총점은 어머니의 연령, 학력, 직업에 따

<표 5> 어머니의 학력, 월수입에 따른 양육 스트레스

M(SD)

영역	자녀의 학습관련 스트레스	자녀의 기질관련 스트레스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전체	
고졸이하	2.43(.69) ^a	2.39(.69)	2.19(.61)	2.34(.52)	
전문대졸 이상	2.28(.64)	2.28(.72)	2.16(.54)	2.24(.52)	
대학원졸	2.12(.60) ^b	2.27(.50)	2.17(.54)	2.17(.37)	
F	4.02 [*]	1.17	.16	2.31	
인구학적변인	100~200 만원미만	2.54(.67) ^a	2.54(.71)	2.26(.53)	2.45(.47) ^a
	200~300 만원 미만	2.35(.64)	2.23(.61)	2.16(.52)	2.25(.47)
	300~400 만원 미만	2.31(.68)	2.23(.74)	2.16(.52)	2.23(.54)
	400~500 만원 미만	2.30(.63)	2.34(.67)	2.32(.53)	2.32(.48)
	500만원 이상	2.16(.66) ^b	2.28(.71)	2.07(.57)	2.16(.56) ^b
	F	3.38 [*]	2.40 [*]	2.66 [*]	3.29 [*]

*p<.05; a, b: Sheffe 사후검증 결과 차이가 있는 집단끼리는 다른 문자로 표시함(p<.05).

<표 6> 어머니의 조기 특기교육에 대한 인식 평균과 표준편차

문항	M	SD
1. 조기 특기교육의 필요성	2.80	1.04
2. 조기 특기교육의 해로움	2.93	1.02
3. 조기 예체능교육의 필요성	3.34	1.00
4. 다른 아이에게 뒤지지 않게 교육시키고 싶음	3.46	1.08
5. 조기 문자, 언어교육의 필요성	3.17	1.09
6. 초등학교 입학 전의 체계적인 문자교육의 필요성	3.84	.92
전체	3.26	1.02

<표 7> 어머니의 학력에 따른 조기 특기교육 인식 M(SD)

영역	학력			F
	고졸이하	전문대졸 이상	대학원졸	
조기 특기교육 인식	3.37(.59) ^a	3.29(.68)	3.05(.58) ^b	3.54 [*]

*p< .05

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어머니의 가정의 수입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3.29, p<.05). 이를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월 평균 가정수입 100~200 만원인 가정과 500만원 이상인 가정 간에서 차이를 보였다(p<.05).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자녀의 학습관련 양육 스트레스는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F=4.02, p<.05), 사후 검증한 결과 고졸이하 집단과 대학원 졸업 집

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5). 그에 비해 가정의 수입은 어머니 양육 스트레스 3개 하위영역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나, 사후 검증한 결과에서는 자녀의 학습관련 양육 스트레스 영역만이 월 평균 수입 100~200 만 원 집단과 500만 원 이상의 집단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3. 조기 특기교육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

자녀들의 조기 특기교육에 대하여 본 연구대상 어머니 들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M=3.26, SD=1.02). <표 6>에 제시된 것 같이, 특히 초등학교 입학 전의 체계적인 문자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으며(M=3.84, SD=.92), 그 다음으로는 자녀가 다른 아이에게 뒤지지 않게 교육하고 싶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높았다(M=3.46, SD=1.08). 그러나 조기 특기교육이 자녀의 발달에 해를 준다는 인식 또한 높은 수준이었다(M=2.93, SD=1.02).

어머니의 조기 특기교육에 대한 인식이 어머니의 사회 인구학적 변인인 연령, 직업, 학력, 수입에 따라 차이가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어머니의 연령, 직업, 수입의 정도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3.54, p<.05; <표 7> 참조), 사후검증 결과 고등학교 졸업이하 집단과 대학원 졸업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5). 즉, 조기 특기교육에 대한 인식은 어머니들의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좀 더 긍정적임을 보여준다.

<표 8> 조기 특기교육을 시키는 이유와 시키지 않는 이유*

조기 특기교육을 시키는 이유 N(%)	1. 자녀가 원하고 소질이 있어서	155(38.8)
	2. 남들이 시키니까 불안해서	10(2.5)
	3. 지능계발을 위해서	160(40.1)
	4. 초등학교 준비	66(16.5)
	5. 놀 친구가 없어서	3(8)
	6. 돌볼 사람이 없어서	4(1.0)
	7. 광고 및 권유	1(3)
전체		399(100.0)
조기 특기교육을 시키지 않는 이유 N(%)	1. 자녀가 싫어해서	147(44.4)
	2. 경제부담	52(15.7)
	3. 효과 없어서	13(3.9)
	4. 배우는 방법 싫어서	73(22.1)
	5. 시간 없어서	20(6.0)
	6. 교사 자질부족	26(7.9)
전체		331(100.0)

*중복응답문항

한편, <표 8>에 제시된 바와 같이 조기 특기교육을 자녀에게 시키는 이유에 대하여 응답하게 한 결과, 자녀의 지능계발을 위해서(40.1%), 자녀가 원하고 소질이 있어서(38.8%), 초등학교 준비를 위해서(16.5%)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들이 조기 특기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자녀가 배우는 것을 싫어하거나(44.4%), 교사의 가르치는 방법이 싫어서(22.1%), 그리고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15.7%)라고 응답했다.

4. 부모역할지능, 양육 스트레스, 조기 특기교육에 대한 인식과의 관계

어머니의 부모역할지능, 양육 스트레스, 조기 특기교육에 대한 인식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전체 부모역할지능 점수와 양육 스트레스 점수 간에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37, p<.01$, <표 9> 참조). 그러나 전체 부모역할지능 점수는 어머니의 조기 특기교육에 대한 인식과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r=-.05, n. s.$). 한편, 양육 스트레스는 어머니들의 조기 특기교육에 대한 인식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r=.16, p<.01$). 세 가지 주요 변인들의 관계에 대한 결과는 부모역할지능이 높을수록 양육 스트레스는 낮아지는 것을 의미하며, 어머니들의 양육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조기 특기

교육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나타낸다.

세 변인들의 관계를 하위요인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부모역할지능의 총점은 양육 스트레스의 하위 3요인 모두와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r=-.34, p<.01$; $r=-.32, p<.01$; $r=-.22, p<.05$). 그리고 양육 스트레스 하위요인 중 학습관련 스트레스($r=.21, p<.01$)는 조기 특기교육에 대한 인식과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어, 어머니들의 자녀의 학습 관련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조기 특기교육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아기의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모역할지능, 양육 스트레스 및 조기 특기교육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 알아보았고, 세 변인 사이에는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나타난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어머니들의 부모역할지능을 측정한 결과, 3가지 하위변인 모두에서 평균이 높게 나타났고, 하위변인에서 수용역할에 대한 평균이 높게 나타난 것은 백경숙과 윤지영(2004)의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자녀 관리역할지능의 지수가 높게 나타난 것은, 어머니들이 자녀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습관이나 태도, 규칙 등 전통적으로 가정에서의 부모역할로 인식되는 양육 행동에 상대적으로 강한 지적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나타내 준다고 하겠다.

이러한 관리 역할지능이 높은 부모들은 자녀들을 양육할 때 긍정적이거나 혹은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아이가 분명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단호하고 정확하게 하는 동시에 적절한 타이밍에 자녀의 행동을 간섭하는 지시 및 통제의 적절성을 지니고 있다(이미정, 1997). 그러나 본 연구결과는 어머니들이 의식으로는 높이 인식하고 있는 것이지만 실제 양육행동에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대상 어머니들은 전체적으로 낮은 양육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고, 이는 어머니들의 학력과 수입에 따라 유의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어머니의 연령이나 직업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라 양육 스트레스에 차이가 있다는 고선주와 옥선화(1993), 김기현(1998)의 연구와 학력과 수입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전귀연과 김수경(2005)의 결과와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고학력일수록 양육 스트레스의 양과 심리적 손상이 적으며, 어머니로

<표 9> 어머니의 역할지능, 양육 스트레스, 조기 특기교육에 대한 인식간의 상관관계

	발달자극 역할지능	양육 역할지능	관리 역할지능	부모역할지능 총점	학습 스트레스	기질 스트레스	자녀와의 관계 스트레스	양육스트레스 총점
발달자극 역할지능	-							
양육 역할지능	.55**	-						
관리 역할지능	.45**	.54**	-					
부모역할지능 총점	.82**	.86**	.73**	-				
학습 스트레스	-.22**	-.20**	-.16**	-.34**	-			
기질 스트레스	-.06	-.10*	-.19**	-.32**	.50**	-		
자녀와의 관계 스트레스	-.11*	-.08	-.11*	-.22*	.45*	.49**	-	
양육스트레스 총점	-.16**	-.16**	-.20**	-.37**	.82**	.84**	.76**	-
조기교육 인식 총점	-.03	-.03	-.03	-.05	.21**	.08	.08	.16**

*p<.05, **p<.01

서의 역할수행에 따른 부담을 덜 겪는다고 보고한 선미정(1995)과는 유사하다. 한편, 오은경(2001)은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다고 밝히고 있어서 본 연구에서도 연구에 따라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관련하여 다른 결과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점이 확인되었다.

또한 어머니들은 양육 스트레스의 하위요인 중 자녀의 학습관련 스트레스와 기질관련 스트레스를 부모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스트레스 보다 약간 더 높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고졸이하 어머니집단에서 더욱 그러했다. 자녀의 학습과 관련된 양육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본 결과는 정규교육 이전의 어린 자녀들에 대해서도 어머니들이 학습에 관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으로 보여서 조기 교육열의 영향으로 어머니들이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여겨진다.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자녀의 학업 성취를 자신의 성공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것은 알려져 있으나(Seth, 2002), 유아기 자녀들에게 학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조기 특기교육에 몰두하는 것은 유아와 어머니 모두에게 어려움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셋째, 어머니의 조기 특기교육에 대한 인식과 조기 특기교육을 실시하거나 실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로는 본 연구대상 어머니들이 조기 특기교육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박수진(2001), 안지영(2003), 이기숙 등(2002)의 연구결과와 비슷한 것으로서 전국적으로 거의 80% 이상의 유아들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조기 특기교육을 받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어머니들의 인식과 행동이 일치하여 나타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본 연구대상 어머니들의 조기 특기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일본 국립교육정

책연구소(2001)의 연구결과와는 다른 것으로, 일본 부모들은 조기 특기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초등학교 이전의 문자 교육 실시나 다른 아이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교육을 하고자 하는 부모의 욕구 등이 우리나라 어머니들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초등학교 이전의 체계적인 문자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대다수의 부모들이 학습지를 통한 한글 또는 영어교육을 보편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고한 김수현(1997)의 연구를 뒷받침해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의 조기 특기교육에 대한 어머니들의 인식에서 주목할 점은 어머니들이 조기 특기교육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동시에 그에 대한 위해성 또한 높이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어머니들이 자녀에게 조기 특기교육을 실시하게 될 때 이의 필요성과 동시에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는 이중적인 구조 속에서 조기 교육열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들은 조기 특기교육의 부정적 효과를 인식하는 것보다 긍정적 효과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크므로 자녀에게 조기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본 연구결과의 조기 특기교육 실시 이유에 대한 결과에서 고찰해 보면, 남들이 하니까 불안해서 또는 광고나 매스컴의 영향으로 즉, 사회문화적인 외적 준거에 의해 조기 특기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어머니에게 내재된 의식 준거에 의해 이러한 교육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안지영(200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지만 한지혜(2004)의 연구결과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아마도 연구방법의 차이점에서 나타난 것

으로 유추된다. 즉, 자연스러운 래포 형성 후 면담을 통한 한지혜(2004)의 연구와 같이 어머니의 자녀 조기교육에 있어서의 속내를 드러내도록 하는 데 있어서 질적 연구방법의 사용이 본 연구결과와 다른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어머니들이 자녀들에 대한 교육적 필요성에서 조기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라기보다 자녀가 원하기 때문에 조기 특기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은 흥미로운 결과이다. 그러나 3순위로 갈수록 어머니들은 조기 특기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어머니들의 저번 욕구라고 여겨지는 '초등학교 준비교육'을 위하여 별도로 교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지혜(2004)의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어머니들의 조기교육의 동기와 목적에는 초등학교 준비와 자녀의 안정된 삶과 성공에 대한 어머니의 욕구가 구체화 된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대상 어머니들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월 평균 가정수입 500만 원 이상 어머니의 비율이 전체의 1/3을 차지하였는데, 이는 타 연구에 비하여 조금 다른 사회인구학적 변인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들의 조기 특기교육의 인식이 가정의 수입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못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월수입이 증가할수록 유아들이 받는 조기 특기교육의 가짓수가 유의미하게 많다고 보고한 이기숙 등(2002)의 연구결과와는 달리, 이제는 어머니들이 가정의 수입에 관계없이 조기 특기교육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어머니의 조기 특기교육에 대한 인식이 학력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더욱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이 밝혀진 것은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라 자녀에 대한 교육열에 차이를 보인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교육수준이 낮은 부모집단에서 자녀들에 대한 교육을 일찍이 시작하려하고 또 그에 대한 필요성을 강하게 인지하는 것은 자녀들을 학력 경쟁시대에 미리 준비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닌가 한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의 어머니들이 유아기에 대한 지식이나 가치관이 상대적으로 낮거나 주변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는 경우 조기 특기교육에 대해 더욱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가정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조기 특기교육이 유아 발달에 미치는 중단적인 연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부모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리는 작업들이 요구된다.

넷째, 어머니의 부모역할지능, 양육 스트레스, 조기 특기교육에 대한 인식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부모역할지능과 양육 스트레스 간에는 비교적 높은 수준의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들이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을 충분히 하고 또 실제 양육행동에서 실천할 경우 양육 스트레스가

감소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어머니가 지각하는 양육 스트레스가 높을 경우 개별적인 자녀지도 상황에 있어서 적합한 양육행동을 하지 못하고 역기능적인 양육행동을 하게 되므로(Abidin, 1992) 부모역할지능을 높일 수 있는 상황별 부모 양육행동 및 대화기술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한편, 전체 부모역할지능 점수는 어머니의 조기 특기교육에 대한 인식과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양육 스트레스는 조기 특기교육에 대한 인식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어머니들의 부모역할지능이 높을수록 양육 스트레스는 낮아지고, 양육 스트레스 특히 자녀의 학습관련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조기 특기교육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어머니의 부모역할지능과 조기 특기교육에 대한 인식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본 연구결과는 어머니들이 자신들의 높은 양육역할 지능과는 상관없이 조기 특기교육 열 현상을 초래하는 현 자녀교육상황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태도를 갖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녀의 학습관련 양육 스트레스가 어머니의 조기 특기교육에 대한 인식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는 양육 스트레스의 하위 3요인 모두 어머니의 조기교육 관련 신념과 유의한 상관이 있다고 보고한 안지영(2003)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본 연구대상 어머니들은 평균수준 이상의 부모역할에 대한 지적능력과 지적행동을 가지면서 자녀의 학습과 교육, 그리고 자녀의 양육에 따른 스트레스는 적게 받고 있었고 조기 특기교육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부모역할지능은 어머니들의 양육 스트레스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자녀의 학습관련 스트레스와 조기 특기교육에 대한 어머니들의 인식이 관련성이 있음이 나타났다. 따라서 어머니들의 조기 특기교육에 대한 인식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으며, 어머니들이 조기 특기교육을 시키게 하는 관련변인의 다각적인 모색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결과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어머니들의 조기 특기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이제까지 유아교육 관련 학자들이 조기 특기교육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한 것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이제는 조기 특기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높은 인식을 가진 어머니들을 조기 특기교육 열 현상을 야기하는 동인(動人)으로 여기고 비판의 시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들의 확고하고 보편적인 조기 특기교육에 대한 인식과 그에 대한 요구를 어떻게 유아교육 현장에서 만족시키면서 동시에 유아에게 발달에

적합한 유아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하여 유아교육과 초등교육과정의 연계에 대한 연구와 적용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 특히 초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과 6, 7세 유아를 위한 교육과정의 연계를 통해 무분별한 사교육을 통한 문자교육의 수요를 감소하게 하는 등의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교육적인 기능을 회복시키는 합리적인 교육변화가 절실하게 요청된다. 그래서 이러한 노력들로 인해 어머니들이 7살 유아들에게 초등학교 1학년의 과정을 선행학습 시키는 현상들이 감소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가지고 있는 제한점과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후속연구를 위해 몇 가지 제언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436명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일반화하여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음을 밝힌다.

둘째, 어머니들의 부모역할지능은 질문지를 통한 검증 방법을 사용하였으므로 어머니들의 양육행동에 대한 지식 정도와 실제 양육행동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부모역할에 대한 지적능력이 높은 어머니들의 실제 양육행동과 양육 딜레마 상황에서의 양육행동을 알아 보고 영향을 주는 관련변인들을 연구함으로써 부모역할지능과 실제양육행동 간의 관계성에 대한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셋째, 조기 특기교육에 대하여 필요성과 위해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이중적인 생각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들이 조기 특기교육을 실시하는 이유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유아교육 학자들이 조기 특기교육이 유아들의 발달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하여 발표하고 매스컴에서 부작용에 대하여 보도함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들이 조기교육열 현상을 보이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노력이 요구된다.

넷째, 조기 특기교육과 관련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이와 관련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어머니들이 단순히 조기 특기교육에 대한 인식만 변화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교육에 있어서 소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현실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다섯째, 조기 교육열 현상을 배경으로 하여 난립하고 있는 사교육에 대한 정책적인 정비와 체계적인 정책 및 이와 관련한 정책연구가 요구된다. 특히, 한글과 영어를 중심으로 한 사교육기관의 유아교육기관화와 관련하여 교육과정과 교육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체계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하겠다.

- 접수일 : 2006년 09월 15일
- 심사일 : 2006년 10월 16일
- 심사완료일 : 2007년 01월 11일

【참 고 문 헌】

고선주·옥선화(1993). 부모기로의 전이에 관한 연구 1: 첫 자녀 임신기 부부의 결혼적용. *대한가정학회지*, 31(2), 55-67.

김기현(1998).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6(9), 46-62.

김미숙·문혁준(2005).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및 양육 효능감과 양육 행동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3(8), 25-35.

김수현(1997). 유아용 학습지의 현황 및 인식도에 대한 토론. *한국 아동학회 춘계학술대회자료집*, 100-104.

김영화(1993). 학부모의 교육열: 사회계층간 비교를 중심으로. *교육학연구*, 30(4), 173-197.

김정·이지현(2005).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의 관계. *아동학회지*, 26(5), 245-261.

김현미·도현심(2004).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5(6), 279-298.

박수자(1996). 지각된 부모의 성취압력과 아동의 학습소외 및 대치행동과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수진(2001). 유아기 자녀를 둔 학부모의 조기 특기교육에 관한 실태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백경숙·윤지영(2004). 부모역할만족도와 부모역할지능에 관한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39, 1-19.

선미정(1995). 취학전 자녀양육에 대한 아버지의 스트레스 연구. *논문집*, 15, 33-41.

신숙재(1997).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 효능감이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신의진(2002). 조기교육과 발달 병리적 문제. *2002년도 춘계 학술대회 자료집*, 27-42, 한국아동학회.

안지영(2003). 유아기 자녀의 조기교육 실태와 어머니의 양육 신념, 양육 스트레스 및 성취압력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1(11), 95-111.

엄선희(1999).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어머니의 자녀 양육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

- 학위논문.
- 오옥환(1999). 한국 사회의 교육열에 대한 고유 이론모형의 탐색. *교육학연구*, 37(4), 1-28.
- 오은경(2001). 취업모의 양육태도, 배우자의지지 및 직업 만족도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목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우남희·백혜정·김현신(2005). 조기사교육 경험이 있는 유아들의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43, 23-43
- 이경숙·염현경·신윤오(2000). 한국형 부모양육스트레스 척도 (Parenting Stress Index) 개발을 위한 예비연구. *소아. 청소년 정신의학*, 11(1), 70-78.
- 이기숙·장영희·정미라·홍용희(2001). 창의적이고 전인적인 유아교육 혁신방안. 교육인적자원부 유아교육정책연구, 교육인적자원부. 2001-24.
- _____ (2002). 가정에서의 유아 조기·특기교육 현황 및 부모의 인식. *유아교육연구*, 22(3), 153-171.
- 이미정(1997). 3세 여아의 행동 억제(behavioral inhibition)와 그 관련변인: 영아기 정서성, 부모의 내향성, 부모의 양육 행동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옥(1997). 조기교육 경험요인과 아동의 창의성과의 관계. *교육연구*, 5, 99-112.
- 이종각(2002). 교육열의 운동법칙과 결합법칙. *교육사회학연구*, 12(1), 173-192.
- 장혜순·박경자·조부경(1994). 유치원 학습지 사용 실태 및 내용분석. *어린이교육*, 14, 73-86.
- 전귀연·김수경(2005).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교사로서의 부모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3(1), 35-52.
- 전춘애·박성연(1998). 어머니 자녀 양육 스트레스와 관련된 심리사회적 변인들.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1), 1-11.
- 조혜선(2004). 조기교육과 어머니 역할. *한국 여성학*, 20(1), 123-161.
- 최경희(2001). 한·일의 육아불안 및 육아스트레스에 최근 연구동향. *유아교육학논집*, 5(2), 207-226.
- 최형성(2005). 남녀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사회적 지원, 스트레스 및 아동의 기질. *아동학회지*, 26(1), 317-328.
- 통계청(2001). 교육사회부문조사.
- 한정신(1998). 한국 여성의 교육열 탐구. *아세아여성연구*, 37, 67-99.
- 한지혜(2004). 취학 전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조기교육열. *열린 유아교육연구*, 9(1), 219-251.
- 현미숙(2004). 유아기 부모를 위한 부모역할지능척도(PIS)의 개발. *아동학회지*, 25(6), 15-34.
- 홍은자(2002). 어머니 성취압력과 학원, 학습지 이용이 유아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이화교육논총*, 12, 137-146.
- 황창연(1996). 취학전 교육의 팽창과정과 팽창요인에 관한 연구. *교육사회학 연구*, 8(2), 57-76.
- 황혜신(2003). 조기교육에 대한 실태 및 부모의 인식. *열린교육연구*, 11(2), 69-85.
- 일본 국립교육정책 연구소(2001). 조기교육의 실태에 관한 종합적 조사 연구. 문부성 생애학습국.
- 牧野 카즈코(1982).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생활과 육아불안. 가정교육연구소 기요.
- 鈴木眞由子, 柿野茂美(1998). 조기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검토. 니카타대학 교육인간과학부 기요 인문·사회과학편.
- Abidin, R. R.(1990). Introduction to the special issue: The stress of parenting.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9, 298-301.
- Abidin, R. R.(1992).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behavior.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1, 401-412.
- Akazawa, K., Kinukawa, N., Shippey, K., Gondo, K., Hara, T. & Nose, Y.(1999). Factors affecting maternal anxiety about child rearing in Japanese mothers. *Acta Paediatr*, 88, 428-430.
- Anthony, L. G., Anthony, B. J., Glanville, D. N., Naiman, D. Q., Waanders, C. & Shaffer, S.(2005).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ing stress, parenting behavior and preschoolers' social competence and behavior problems in the classroom,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14, 133-154.
- Belsky, J., Crnic, K. & Woodworth, S.(1996). Trouble in thesecond year: Three questions about family interaction, *Child Development*, 67, 556-578.
- Benzies, K. M., Harrison, M. J. & Magill-Evans, J.(2004). Parenting stress, marital quality, and child behavior at age 7 years. *Public Health Nursing*, 21, 111-121.
- Crnic, K. A., Gaze, C. & Hoffman, C.(2005). Cumulative parenting stress across the preschool period: Relations to maternal parenting and child behavior at age 5.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14, 117-132.
- Crnic, K. & Low, C.(2002). Everyday stresses and parenting. In: M. Bornstein(Ed.), *Handbook of parenting: Practical issues in parenting*(55-94) Washington, DC: Lawrence Erlbaum.
- Davies, S.(2004). School choice by default? Understan-

- ding the demand for private tutoring in Canada. *American Journal of Education*, 110(3), 233-255.
- Holden, G. W. & Ritchie, K. L.(1988). Child rearing and the dialectics of parental intelligence. In J. Valsiner (Ed.), *Parental cognition and adult child interaction*(30-59). N. J.: Ablex.
- Kail, R. & Pellegrino, J. W.(1985). *Human intelligence: Perspectives and prospects*. N. Y.: Freeman.
- Manzo, K. K.(2002). Japanese schoolchildren 'cram' to boost achievement. *Education week*, 21(43), 8.
- McGillicuddy-De Lisi, A. V. & Sigel, I. E. (1995). Parental beliefs. In M. H. Bornstein(Ed.), *Handbook of parenting, vol 4*(333-358), N. 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Miller, C. L., Heysek, P. J., Whitman, T. L. & Borkowski, J. G.(1996). Cognitive readiness to parent and child intellectual-emotional development of adolescent mothers. *Developmental Psychology*, 32, 533-541.
- O'Collaghan, M. F., Borkowski, J. G., Whitman, T. L., Maxwell, S. E. & Keogh, D.(1999). A model of adolescent parenting: The role of cognitive readiness to parent.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9(2), 203-225.
- Reitman, D., Currier, R. & Stickle, T.(2002). A critical evaluation of the parenting stress index-short form (PSI-SF) in a Head Start population.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31, 384-392.
- Sanders, M. R., & Woolley, M. L.(2005).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self-efficacy and parenting practices: implications for parent training. *Child: Care, Health & Development*, 31(1), 65-73.
- Seth, M. L.(2002). *Education fever: Society, politics, and the pursuit of schooling in South Korea*. HI: University of Hawaii Press.
- Webster-Stratton, C.(1990). Stress: A potential disruptor of parent perceptions and family interactions.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9, 302-312.